

데스크 시각

문재인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카드회사의 TV 광고 카피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탈출 욕구’를 잘 읽어 낸 문구다.

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심리적 증상을 ‘번 아웃(Burn-out) 증후군’이라고 한다. 반복되는 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이 쌓이면서 연료가 모두 불타 버린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번아웃 증후군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의 민심을 말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호남 민심은 ‘정권 창출이 최고의 정치적 선(善)’이라는 공간 내 속에 맹목적인 정도로 새정치연합을 지지했다. 각종 선거에서 원천 없는 공천과 기득권 유지 행태가 지속됐지만 ‘미워도 다

시한 번’의 심정으로 지지를 보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리더십 부재와 해묵은 계파 갈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각종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정권 창출의 비전마저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세월호 참사, 심상시 논란, 성완종 리스ٹ 파문, 국회법 개정안 파동, 메르스 사태 등이 점철되고 있지만 민심의 고통과 분노·눈물을 전혀 담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번-아웃 증후군’ 호남 민심

정치적으로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호남의 민심을 광고 카피에 빗대 표현한다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 않고 싶다. 이미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더욱 격렬하게 지지하지 않고 싶다”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파란이 일어났다. 올해 4·29 광주 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새정치연합의 총력전에 맞선 무소속 전정배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됐다. 광주·전남 민심은 이제 새정치연합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보궐선거 이후 “격렬하게 지지하지 않고 싶다”는 호남 민심의 흐름이 신당 창당 움직임과 연동되고 있어 주목된다. 혁신을 통한 새정치연합의 리모델링보다는 신당 창당 등의 야권 재편을 통해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움직임에 동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권의 심장이었던 호남 민심이 야권 분열로 상징되는 신당 창당의 동력이자 구심점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그러다 말겠지. 어디 가겠어?”라는 안이한 인식을 보였던 새정치연합 지도부 등 주류 진영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역 언론을 매일같이 모니터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호남 국회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기용하는가 하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혁신에 앞서 헌신 전제해야

하지만 호남의 민심은 진정되거나 호전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흐름이다. 새정치연합의 대책이 본질을 비껴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호남 민심은 누구를 발탁하거나 진정성을 강조하는 정도로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야권을 결집하고 정권 창출의 비전을 만

들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없이는 백악이 무효인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제는 문재인 대표 등 당내 주류 세력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혁신위가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헌신과 희생이 없는 혁신’은 국민적 기대와 감동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측면에서 조경태 의원의 ‘문재인 대표 부산 출마’ 주장은 조 의원과 문 대표의 정치적 악연을 떠나 주목할 만하다. 문 대표가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고 영남 민심 속으로 ‘하방’(下放)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헌신이 혁신을 지지하는 구도만이 당내 계파 갈등의 고리를 끊고 호남과 영남을 넘어 민심의 지지를 견인하면서 신당 창당으로 인한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위기 국면에서 리더의 희생과 결단은 필수 불가결한 요건이다. 야권 진영이 결집, 정권 창출의 용광로에서 함께 타오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주류 진영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은 ‘패배해서 분열하고, 분열해서 패배하는’ 과거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헌신과 결단을 기대한다.

/tuim@kwangju.co.kr

은편칼럼

수능 D-100을 넘기며



김창균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있는 고3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 인자라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으로 하루가 짧고, 방학이 끝나자마자 시작될 수시 전형에 대한 준비도 분주하기만 하다. 어느덧 방학도 절반의 고비를 넘어서고, D-100을 갓 지나며 두 자리로 줄어든 숫자가 주는 긴장감은 열대야보다도 뜨겁게 다가선다. 방학 때도 식을 줄 모르는 열기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오랜 우리 사회의 관행이지만, 수능 성적과 내신 점수에 맞춰 무조건 ‘인(인) 서울’하고, 점수에 맞춰 지방 학교와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는 향후 20년 이내에 대학 절반이 문을 닫는다고 했다. 이미 코세라, 에덱스와 같은 온라인 공개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기존 대학 교육 체계를 크게 바꿀 태세다. 대학이 취업을 위한 도구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평판 좋은 대학교나 취업과 직결되는 학과를 향한 목적 없는 공부보다는 자신의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교육을 주제로 한 책이기는 하지만, 로버트 기요사키는 ‘왜 A학생은 C학생 밑에서 일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B학생은 공무원이 되는가’에서 학생을 ‘Academics(학자형), Bureaucrats(관료형), Capitalists(자본가형)’로 나누었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권 학교는 아이들을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데 주력할 뿐이라,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는 A학생은 나중에 커서 결국 C학생 밑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틀에 갇혀있던 A학생보다는 순발력과 경험을 통해 실전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C학생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쯤에서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을 떠올려 본다. 줄무늬 에블레는 기를 쓰고 기둥 꼭대기를 향해 기어가고 있는 동료에게 묻는다.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오르려 하는 거지?”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아마 틀림없이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남들이 다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갔던 에블레는 결국 그 끝에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미래의 직업이 무한하지 않는 한 경쟁은 필연이지만, 자신의 적성과 비전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다. 서로를 짓밟고 무너뜨리며 위만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되며, 미래를 위해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견디라는 희망 고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15년 안에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5년 안에 전체 근로자의 40%가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1인 기업 등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일하게 될 것이라는 토마스 프레이의 예언은 현재 진행형이다. 왜 가야하며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에 대한 분명한 설정이 올 여름 꿈의 가치를 찾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꽃들에게 희망을 품고 고지 속에서 입고(忍痛)하여 꽃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라는, 나비가 된 에블레의 메시지가 D-100을 넘어선 고3 수험생들에게 우보천리(牛步千里)의 교훈이 되길 바란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인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해양국립공원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



최종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에 기여하고 있는 생태관광 기능, 특산물 등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지역주민 소득을 향상시키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도해 국립공원의 연간 이용가치는 1583억원, 보존가치에 대한 혜택은 4조 438억원 등 총 4조2021억원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면 이용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갯벌 국립공원’인 유럽 바덴해의 경우 섬 주민들은 수입의 100%, 그리고 해안가 주민들은 수입의 60~70%를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바덴해 갯벌 국립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총수입은 약 56억 유로에 달하며, 일자리수도 약 11만7000개에 이른다. 과거 바덴해 지역은 1차 산업에 종사했으며, 가장 가난한 지역에 속했지만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뒤 엄청난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독일의 공원청은 지역주민과 협력해 리더작성 갯벌 국립공원에서 연간 3조원 이상의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갯벌이 훼손되면 탐방객이 줄어들어 지역주민 소득에 많은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갯벌

국립공원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우 적극적이다. 브라질의 페르난도 지 노토냐 해양국립공원은 해양생물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을 추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브라질 평균 보다 1.5배가 높으며, ‘국립공원’ 브랜드를 연계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빅토리아섬에서는 인근의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생태관광에 많은 관광객이 참여해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의 에버글레이드 국립공원은 기수역 습지로 유명하며, 야생생물이 다양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찾는 공원으로 불로리다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 밖에 코스타리카, 프랑스, 남아공, 호주, 덴마크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립공원’ 브랜드를 활용해 자원보전과 함께 생태계 서비스를 구축해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예인이 ‘한류’라는 브랜드를 통해 아시아를 비롯해 일부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나 인위적인 문화는 지속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가의 최대 브랜드로 150년 가까이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유흥문화와 함께 야생생물을 먹거리 문화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무단포획과 채취가 삼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가 끝나면 다도해 섬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국립공원이 추구하는 생태계 서비스 문화가 시작된다. 생태계서비스 문화가 바로 ‘국립공원은 브랜드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은 다도해 국립공원에서 먹거리, 잡자리, 즐길거리 등 생태관광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소득향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개발되지 않는 좋은 자연환경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경관자원과 문화자원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가고 싶은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그 대상이 바로 해양국립공원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국내 최초 국가정원에 운영비 한 푼 없더니

우리나라 첫 국가정원 등록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정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로부터의 운영비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정원 운영비는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재부의 내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순천시가 요청한 순천만정원 관리비 33억 원을 비롯해서 산업디자인전 개최 지원비 8억 원 등이 제외됐다. 순천만정원은 조만간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28일 ‘순천만정원’의 구역도, 시설명세서, 수목유전자원 목록 등이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고 순천시와 함께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가정원 등록 여부는 8월 초순 심사위원들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정원 지정이 확실시되지만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한다

면 허울뿐인 국가정원으로 걸들 수밖에 없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순천시는 올해 다른 항목의 예산을 감축하면서 가가스로 105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 또한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약간의 무리를 해서 감행한 것이었다. 결국 당초 운영비의 절반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순천시는 정자 요구액이 기재부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시에서 요청한 33억 원도 과거 수년 전 운영비가 66억 원 정도로 나온 용역 결과에 근거한 것이어서 현재 상태를 감안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다. 국내 최초 국가정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순천만정원을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 정원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이 필수적임은 두 말 할 나위 없다. 전남도와 순천시는 산림청과 함께 국가정원 운영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총인시설’ 같은 건설 비리 다시는 없도록

광주시가 최근 건설공사 담합과 특혜·공정성 시비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설계 예고제’를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총인시설’처럼 공사와 관련한 대형 건설 비리로 인해 수사를 받거나 공무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설계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해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함으로써 특혜·공정 시비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도입한 ‘건설공사 설계 예고제’는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 종합공사와 10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건설공사의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와 형식, 공법과 자재 등 주요 설계 내용 전반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해 업체와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설계안을 확정하는 제도다. 법안 확정 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제를 건설공사 심의에 적용해 불공정 우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용역평가 심의위원 후보자 대상을 대폭 늘려 업체와 위원 간 사적 결탁을 차단하고, 평가에 참여한 특정 위원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또 실제 평가에 나서는 위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특정 대학이나 기관 소속 위원을 최대 2명 이하로 낮췄다. 기술형 입찰공사(터키)의 설계평가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설계심의회와위원의 연임이 불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과거엔 공사 규모와 사업비가 클수록 비리와 불공정에 따른 시비가 잇따르는 등 건설공사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건설사 특혜·공정성 시비를 근본적으로 없애 공정한 건설시장 정착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능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승부하교자 하는 업체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피서의 목적이 스트레스 해소에 있다면 요즘 최고의 피서법 중 하나로 스포츠 관람을 들 수 있겠다.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에게는 ‘방콕’집에서 휴가 보내기 만 한 바깥스가 없는데 이때 스포츠 관람이 좋은 대안이 된다.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거나 기아 타이거즈가 역전승으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연출할 때 지역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일순간에 날리면서 청량감을 맛보게 된다. 골프 팬들에게 박인비의 ‘브리티시 여자 오픈’ 우승이 청량제가 됐다. 박인비는 브리티시 오픈 우승으로 4대 메이저대회를 모두 정복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그녀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은 남녀 통틀어 아시아 선수 가운데 최초로 대기록이다. 그동안 골프 역사상 남녀 각각 6명씩만이 기록했으나 대단한 기록이다. 팬들은 대회 마지막 날 3타나 뒤진 상태에서 경기에 나선 박인비가 이글과 바다로 대역전을 펼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열대야를 잊었다. 중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축구대회에서 한국의 남녀 대표 팀이 중국 남녀 대표 팀을 잇따라 꺾었다. 여자 대표 팀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고 남자 대표

팀도 중국 팀이 ‘공한증(鞏鞏症)’은 옛말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결과라 의미가 컸다. 지역 스포츠 팬들에게 기아 타이거즈의 지난주 경기가 피서의 하이라이트였을 것이다. SK·한화와의 원정 6연전에서 모두 승리했는데 이 가운데 5번이 역전승이고 4번이 한 점 차의 짜릿한 승부였다. 김원섭은 1000 경기 출장에서 SK 마무리 정우람으로부터 역전 스리런 홈런을 터뜨려 2009년 타이거즈 우승 당시를 재연했다. 장종고 선후배로 안방마님(후수인 백용환과 이홍구는 선의의 경쟁 속에 번갈아 가며 역전 홈런을 날렸다. 광주일고 출신 코리아ൻ 빅리거 강정호의 활약도 고향 팬들의 마음을 시원 주었다. 강정호는 미국 내셔널리그에서 ‘7월의 신인’으로 뽑혀 최희철 이후 12년 만에 이렇듯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35도를 넘는 폭염이 8월 중순까지는 계속될 전망이다. 기아 타이거즈가 8월에도 팬들에게 청량제와 같은 시원함을 선물해 주었으면 좋겠다. 타이거즈를 보며 무더위를 잊는다. 이런 추재 대표 팀을 잇따라 꺾었다. 여자 대표 팀이 계속돼 ‘가을야구’까지 즐길 수 있으면...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스포츠 피서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창·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체부 2200-696 | 광고개발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정 치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대표 FAX 222-4918) | 사 진 부 2200-693 | 다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사 회 부 2200-663 | 조 사 부 2200-571 | 프 로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대표 FAX 222-4267)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